

# 고택·음식·갯벌...전남 특화체험 관광산업 뿌리내렸다

관광전문가 양성·주민사업체 발굴 등 통해 매출 확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전국 유일 재선정 국비 확보

전남의 고택, 음식, 갯벌 등 독특하고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관광 상품을 만들어 지역민과 공유하는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이 소멸 위기의 전남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관광 인력으로 양성된 청년들이 지역 자원, 지역민과 결합해 특화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전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공모에 재선정돼 2년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지난 2019년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이후적으로 사업을 추진, 최대 5년 지원 후 종료 예정이었으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선정됐다.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은 지역 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 자원과 스토리를 연계한 전남 특화 체험 프로그램과 아이템을 통해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풀뿌리 관광산업 기반 조성 사업이다.

그동안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주민이 주도하는 특화 로컬상품 개발을 위해 해외 판로 개척, 전남의 메가 이벤트 및 특화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기획 프로젝트를 진행해 관광두레 사업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남도고택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연계한 일본인 대상 전남 로컬 미식여행 상품을 출시해 136명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했다. 또 전남도 메가이벤트 및 축제 연계 판로 개척 프로젝트, 경성도와 호남지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52개 사가 참여하는 초광역 플라마켓 개최 등 다각화된 성장 지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 밖에도 5년의 사업 기간 총 656명의 주민에게

관광 일자리를 제공하고 83개소의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함으로써 누적 매출액 106억원을 달성했다. 또 '관광두레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의 로컬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관광 전문인력 360명을 양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 진정한 풀뿌리 주민관광 산업 기반을 조성했다.

전남도는 관광두레 사업이 지역 주민은 관광상품을 만들고 청년은 현장에서 합한 감각을 더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돕는 청년-주민 상생형 협업사업인 만큼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롤모델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

로써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하는데 집중, 전남만의 특화 상품을 추가로 만들어낼 예정이다.

또 관광인재 양성 요인인 관광두레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 기획자 발굴 및 양성, 지원, 취·창업까지 연계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청년의 지역 정착 확대에 기여하기로 했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관광두레 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콘텐츠를 개발, 풀뿌리 관광산업이 주민 속에 뿌리 내리고 지역관광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진 가우도, 광양 인서리 공원, 여수 예술랜드, 영암 국제카트경기장

## 나홀로 즐기는 감성여행...전남으로 봄나들이 오세요

나홀로 여행을 즐기고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을 접할 수 있는 여행지를 선호하는 MZ 세대(밀레니얼+Z 세대·1981~2010년생)들을 위한 전남의 맞춤형 여행지로 강진 가우도, 광양 인서리 공원, 여수 예술랜드, 영암 국제카트경기장이 꼽혔다.

전남도가 3월의 추천관광지로 선정한 강진 가우도는 섬 모양이 소의 멍에를 닮아 지어지 이름. 두 개의 출렁다리로 연결돼 있는데, 저두출렁다리(438m)와 망호출렁다리(716m)를 오가다보면 자연스럽게 1만보 걷기가 될 정도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생태탐방로(2.5km)를 따라 걷다가 지치면 모노레일을 타고 청자 도요지 강진의 상징 청자타워(25m)에 올라가 짙트랙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

광양 인서리공원은 광양 원도산 마을의 한옥 14채를 활용해 만들어진 복합문화공간이다. 한옥의 형태를 살린 카페, 전시 공간, 숙박시설 등으로 꾸며졌는데, 색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어 SNS 핫 플레이스로 알려졌었다.

여수 예술랜드는 100m 높이에서 즐기는 공중그네, 스카이워크 등을 즐기며 다도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바다를 향해 뻗어있는 조각공원의



SNS에서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광양 인서리 공원 한옥복합문화공간.

상징 '마이다스의 손' 대형 조형물은 평일에도 사진을 찍으려는 여행객들로 길길이 늘어서 있는 명소다.

영암 국제카트경기장은 국내 유일의 국제 규모 카트(Kart) 전용 경기장. 카트 체험 뿐 아니라 캠핑 시설도 갖춰져 있어 가족·친구와 색다른

여행을 즐기기에 좋은 공간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나들이하기 좋은 시기에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형 콘텐츠를 찾아 즐기는 재미를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베트남 호치민에 농수산식품 상설매장

신짜오 코리아마트 입점...전복수프·김·해초국수 등 44개 품목

전남도가 지난 10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을 개설하면서 세계 9개국에 23개의 상설판매장을 구축했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수산식품을 저가격에 수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네트워킹을 조성한 것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호치민 상설판매장은 한국식품 대표 마켓인 신짜오 코리아 마트에 입점했다.

신짜오 코리아 마트는 호치민, 봉파우, 빈중, 무이네, 동나이 지역에 21개 식품 전문매장을 운영 중이다.

현지 소비자와 관광객,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복차우더(수프), 김, 미역, 해초국수, 유아초코크런치, 한식육수 등 전남 16개 수출 기업 44개 품목의 농수산식품을 수입해 판매하게 된다.

전남도는 2017년부터 한국 농수산식품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동남아, 유럽 지역 현지 마켓과 연계해 전남 농수산식품 전용 판매장을 개설해 수출기업의 안정적 수출 판로를 지원하는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9개 나라 22개 상설 판매장을 운영해 2023년 기준 1026만 달러의 농수산식품 수출을 달성했고, 올해 신규 운영사 선정을 통해 연말까지 10개 매장이 추가로 개장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전남도 농수산 수출액은 총 4965만 달러로, 전년보다 24.4% 늘었다. 특히 글로벌 케이-푸드(K-Food) 인기와 함께 김 수출액이 2267만 달러로 79.1% 상승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연금개혁안 2개 압축...시민대표단 토의·특위 더 거쳐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 의제심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다만 이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계 집단 대표자를 속히해 추진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연금개혁안은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원회, 특위 지원 논의를 추가로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심의단과 연금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속의단은 논의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로 '내는 돈'을,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로 '받는 돈'을 각각 결정하는 기준이다.

즉, 속의단이 추진 안은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보다 많이 받는 안',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안'인 것이다.

속의단이 채택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보다 보험료율을 낮췄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민간자문위원회의 보험료율 15%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16년 늦춰지는데, 여기에 속의단의 보험료율 12%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지게 된다.

/연합뉴스

## 광주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

2026년까지 지역정착·지원사업 등 추진...18~19일 접수

광주시는 "오는 4월 개소 예정인 외국인주민(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할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산구 흑석동 옛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시설을 활용해 외국인주민(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사업(통번역, 노동·인권 등 고충상담, 한국어 교육)과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지원 및 선주민과

문화교류 등 외국인주민 관련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민간위탁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서 주소 두고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분야비영리법인·민간단체로, 옛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했거나 최근 3년 이내 사업추진 실적이 있어야 한다. 선정된 법인·단체는 협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센터 운영을 맡는다.

위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한 후 18~19일 제출서류를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 법인·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및 전문성, 지역사회 민간자원 네트워크 활용능력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상현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전문·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희 기자 lucky@kwangju.co.kr

## 2024 고소득 추천 목록

포포나무	제릭스 빅걸 리만스 딜라이트 마리아스 조이	선플라워×생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선발된 최고 크기의 포포, 최대 과중 800g 프로리믹×생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육종된 품종, 달콤한 향에 뛰어난 품질을 자랑 최대과중 631~704g, 년중 수확량 우수 유명 과수 학자가 지정한 최고 맛있는 포포
사과	신품종부사 후지사과	입맛과 반사필름을 깔지 않아도 동서남북 색상이 절내고 저장성이 우수하며 신맛은 적고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감	감풍, 원추 태추단감 슈퍼대봉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수퍼 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중에 맛이 뛰어난 식재료를 많이 합니다.
임나무	민엽나무 가시없는 임나무	가시 없는 민엽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사과,신품종 후도,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4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감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 땅 상담해 드립니다.

감을농원

묘목상담 010-3121-7676  
문의전화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25  
농협 703-02-49271(예금주 정중환)

##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 2024. 3. 13(수)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요거리-무등산방향 투리보석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4. 3. 6(수)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신청순○명)

####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친가비법 대공개
- 기갑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 펜션 급매매

###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유
- 총 2개동 (객실11개, 히노기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대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숙자(540220-2XXXXXX)
  - 최후주 소 : 광주 동구 중심천로 117. 103동 1002호(안동, 학동 남해 오백)
- 피상속인 망 이숙자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년174호로 신청하여 2024년 3월 6일 실반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 및 승속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못하여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3월 12일
- 상속인 : 한종훈(771109-1XXXXXX)  
전남 곡성군 곡성읍 삼인동길 53, 102동 202호(수부름연립주택)
  - 신고기간 : 2024. 3. 12. ~ 2024. 5. 22.
  - 채권신고처 : 상속인 한종훈의 주소

#### 산행안내

3월16일(토)

▲광주호안회 3월 16일(토) (제69차) 정기산행 해파리길 15코스 호미반도 둘레길(05시 30분 풍양동 롯데마트 7주차장에서 05시 40분 진월동 육교 및 05시 50분 백운우재곡 06시 롯데백화점 06시 10분 광주예술의전당 주차장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 先州日報 지역안내

북구	• 동 206-1920 • 문 206-1900 • 북광주 525-0761 • 신 222-8171 • 영 신 571-7699 • 오 266-7601 • 동 433-1503 • 우 신 433-1503
동구	• 남 673-6836 • 동 222-9054 • 동 부 225-6001 • 동 222-9054 • 동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북 651-1833 • 북 673-6836 • 동 4675-6605 • 진 4671-7276
서구	• 경 신 382-5788 • 상 목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인 신 376-7153 • 차 경 378-6511 • 동 압 609-0311 • 화 경 369-1625
광산구	• 울 남 952-1687 • 화 960-1920 • 청 단 973-2900 • 화 남 955-0451 • 경 신 944-0444